목어

평양축전과 불교



2001평양 축전에 관한 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 술렁거림의 원인은 바로 경제성장 지향주의 일변도로 달려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 공업(根本的 共業)인 과정과 절차의 정의(正義)가 바로서지 못한 때문이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실을 직시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서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보탬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불교계가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행사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었고 특히 우리 불교계에는 구체적 성과를 배가시키고 계속할 수 있는 정서적 성과가 있었음을 전 불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우선 평양 대성산 광법사 법회에 분단이후 최초로 남, 북, 해외, 원불교의 스님과 교무 그리고 북의 불교 신도들이 모여서 법회를 보았다는 점이 그 첫째이다. 두 번째는 법회에 동참한 북의 스님과 신도들이 찬불가를 3절까지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반야심경을 음의 고저와 장단의 구분까지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셋째이다.

묘향산 보현사에서는 서로가 불교식으로 맞절을 한 것도 닮아가려는 노력 속에서 보인 의미 있는 네 번째 해프닝이다.

다섯 번째는 북측에서 사찰 단청지원을 요청했는데 남측의 조계종 등 여러 종단들과 평불협 등 제 단체가 연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 여섯 번째는 북측 사찰에 연고가 있는 노스님들이 주석하시는 사찰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남한대표단의 대거 방북으로 조불련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듯한 느낌을 갖는 것도 불자로서 반가운 일이었다.

법현(종단협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환경 친화적 사찰 기틀 다져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기본방향

지자체 무분별 개발 억제 가능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전통사찰을 단순히 선언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찰의 실질적 보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의 문제점은 1987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진행돼 법적 일관성과 체계성이 미흡했다는 데 있다.

또 개정시마다 불교계 당면 현안해결에 급급하여 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진행돼,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관련조항은 있어도 지정해제 조항이 없는 등 법 체제상의 문제점을 노출했었다.

그러다보니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재산보호 위주의 소극적 ·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이 보존 ·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발전에 관한 정책적 자문기관인 전통사찰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한 것은 의의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통사찰 소임자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해온 허가사항도 대폭 간소화 됐다.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 신 · 증 · 개축과 관련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18개나 되고 각 관련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절차를 통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농림부장관등 각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조항인 허가의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이 불교발전의 중심적인 청정도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과 환경 친화적인 주변조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세수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무분별한 개발을 확대해온 상황에서 전통사찰의 보호, 존엄, 풍치보존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대상범위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에서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례보다 격상된 대통령령으로 확정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건설공사로 인해 전통사찰이 훼손,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개발사업시 전통사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전통사찰의 보존 유지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관람료 징수와 금전 등의 기부조항을 신설하고, 전통사찰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미 보유 사찰의 경우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통사찰은 총 855곳이며, 이중 관람료 사찰은 70곳이다.

김원우 기자

통도사 내분 '일단락' … 총림 위상 회복 '기대'

월하 스님 만장일치 방장추천 의미

최근 월하스님은 조계종단을 상대로 대법원에 냈던 소송을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계종총무원과 통도사간의 갈등이 해빙국면을 맞았고, 이 같은 해빙 분위기를 타고 통도사는 월하스님 방장 재 추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영축 총림의 위상을 회복하고 종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총림의 방장을 추천 한다' 고 밝힌 통도사의 산중총회 개최는 월하스님의 소송 취하서 제출과 더불어 조계종총무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된다. 산중총회 개최와 방장 재추대 추진이 바로 종단과의 불협화음에서 빚어졌던 총림 폐지, 재설치, 방장 공석이라는 그간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1984년 총림으로 설치되었던 영축총림 통도사가 98년의 조계사 사태와 관련 99년 총림이 폐지되었고 더불어 월하스님에 대한 방장추대도 취소되었다. 이후 통도사는 2000년 종회에서 총림으로 재 설치되었으나 방장은 공석인 채로 현재에 이르러 통도사는 힘을 중심을 잃고 '어른 없는 산중' 으로 사내에 내재되어 왔던 갈등과 내분의 불씨가 불궈져 나왔다.

이 같은 내분의 조짐은 주지 임명에서 본격화되었다. 주지직을 놓고 통도사내의 큰 줄기인 경봉스님 문도와 구하스님 문도가 서로 후보를 내는가 하면 현재 주지 직무대리인 현문스님이 임명장을 받으면서는 '이면합의서 교환' 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됐다. 또한 임명장을 받고도 합의서 이행 여부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시점에서 20일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9월 종회 인준 받을땐 '조계종 사면' 본격화

253명의 총회구성원 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월하스님 방장 추천의 건이 어떠한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주지직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여왔던 경봉스님 문도와 구하스님 문도가 갈등국면에서 벗어나 화합 승가의 본연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날의 산중총회결과가 통도사 내분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아직도 두 문중이 차기 주지, 부방장, 종무행정직 등과 관련 또 다른 합의서를 교환한 상태이며 그 합의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측이 교환한 합의내용에 방장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종회에서의 월하스님의 방장추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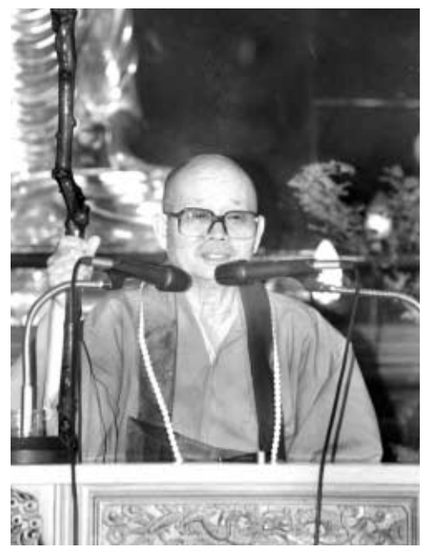
◇20일 통도사는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월하 스님을 방장으로 추천했다.

월하스님의 방장추대가 인준되는 9월 4일의 임시종회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1일 월하스님은 '종도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98년 종단 사태와 관련 참회의 뜻을 밝히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같은 월하스님의 문건이 9월 4일 열리게 될 임시종회에서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월하스님 방장 재추대 건을 계기로 조계종 사면이 가시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월하스님의 참회선언 이후 방장 추대 동의에 많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아직 사회법에 제소된 송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하스님을 방장으로 재추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과 계율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던 청하 스님. 사진은 96년 서울의 한 사찰에서 법문하는 모습.

계와 행의 뜻 일깨워 준 스승

22일 입적 청하 스님 행장

"일체방하(一切放下) 휴거휴거(休去休去) 쉬고 싶다 쉬어라. 할(喝)."

8월 22일 입적한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인 청하스님은 이러한 임종게를 남기고 영원한 휴(休)에 들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과 원로회의 의원으로 종풍 진작에 힘써온 스님은 평소 '계율을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후학들에게 계의 중요성을 행과 뜻으로 일깨워준 스승이었다.

다툼과 갈등을 쉬고 일체를 놓으라는 큰 꾸짖음을 남기고 떠난 청하스님은 96년부터 99년까지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지내면서 "역사적으로 불법이 흥할 때는 계율을 존중하고 수호했음을 알수 있다"며 "오계만 지켜도 나라가 바로서고 불법이 흥하는 것이니 오계 지키기를 범국민적 생활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같이 불법을 대중화하고 불법의 가르침을 생활속에 녹여내려는 노력은 스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교통안전 휘호' 에서도 잘 드러난다. 스님은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생명존중을 일깨우기 위한 족자용 붓글씨를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96년에는 2천여장의 붓글씨를 건설교통부에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불교가 거창하고 큰 것에 있지 않으며 <천수경> 일독이라도 실행하는 것 속에서 드러난다고 항상 강조하신 스님은 20여 년간 영축총림의 전계화상으로 출 재가를 망라한 수많은 불자들을 감화시키며 진정한 불제자로 키워냈다.

"나의 원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인류가 평화로운 마음들로 가득해져 지상정토를 이루는 것"이라는 스님의 큰 원을 바탕으로 홍콩 홍법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한 불교 국제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천미희 기자